



지난 11월25일 공식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은은한 조명이 도시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아시아 문화교류 허브 '시동' 7대 문화권 조성 사업 '시급'

리뷰 2015

② 아시아문화전당 공식 개관

민주평화교류원 콘텐츠 구축 지연...4개월만 개관
도심 인프라 조성 지지부진...광주시 재원 마련 과제
전시·미디어아트 치중 아쉬워...지역 연관성 높여야

2015년 광주는 문화융성의 기틀을 다지는 한해였다. '문화수도' 광주의 문화발전소가 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지난 11월25일 공식개관한 것이다. 문화전당이 개관함으로써 문화인프라 불모지였던 광주는 '블루칩'으로 통하는 문화산업의 거점이자 아시아 문화교류의 허브(Hub) 도시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세계를 향한 문화의 창(窓)'을 지향하는 문화전당은 민주평화교류원, 문화창조원·예술극장·문화정보원·어린이문화원 등 5개원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연면적(건물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넓이·16만1237㎡)으로 따져 국내 최대인 국립중앙박물관(13만7290㎡) 보다 넓다. 전당 건립에는 토지보상비와 건립비를 통틀어 7030여억원이 들었다.

문화전당 개관이 주목되는 것은 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점인데 지역 경제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잖다. 전문가들이 문화전당 공식 개관을 계기로 도심 곳곳에 문화적 생태를 만드는 7개 문화권 조성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현안인 문화전당이 개관한 만큼 이 사업의 또 하나의 축인 7대 문화권 구축 등 '문화적 도시환경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추진되며, 문화전당 건립과 문화적 도시환경조성 등 양대 현안이 마무리돼야 사업이 완결된다. 문화적 도시환경조성 사업은 광주 도심을 권역별로 나눠 문화인프라를 확충하는 7대 문화권 조성사업과 도시에 문화적 경관을 조성하는 문화도시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들 사업은 현재 활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사업 예산이 정부와 광주시가

각각 절반씩 분담해야 하는 조건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문화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종합 수정계획(2013년~2023년)에 따르면 총 예산규모는 4조5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7000여억원에 달한다. 결국, 광주시의 열악한 재원으로는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문화전당의 인프라가 완결돼 가는 상황에서 '문화적 도시환경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지 않는다면 문화전당 건립 효과가 도시 전체에 미치지 어렵다"고 지적한다.

문화전당이 지난 11월25일 공식 개관했지만 민주평화교류원(옛 도청·별관·회의실 등 6개 공간)의 콘텐츠 구축작업이 늦어져 나머지 4개원(문화창조원·예술극장·문화정보원·어린이문화원)만 개관하는데 그쳤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민주평화교류원은 오는 2016년 상반기에나 개관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전시, 공연 등)가 전시나 미디어아트에 치중돼 있어 지역 문화산업과 연관성이 낮은 만큼 문화전당의 지역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문화전당 콘텐츠 구축 등에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가 낮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여수 죽림지구 '짜맞추기식' 개발 의혹

개발행위 제한·토지거래허가 지정 '일사천리'...의견 수렴·절차 무시 비난

여수시가 죽림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요식행위로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수시가 죽림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는 안을 여수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도 전에 전남도에 죽림지구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죽림지구는 전남개발공사가 3000억원의 공공자금을 들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죽림지구 외에도 270만2000㎡ 규모의 오피스텔개발지구 사업도 벌이고 있는 공사가 '토지 수용-택지 개발-건설 업체 대상 분양'이라는 기존 택지개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민원 발생, 미분양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14일 여수시, 전남도 등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난달 23일 전남도 토지거래허가공문을 보내 죽림지구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 전남도가

검토를 마친 뒤 오는 17일 전남도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전남개발공사가 공영방식으로 죽림지구를 개발하는데 있어 이익을 노리는 민간개발이나 투기 우려가 높아 해당 구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그에 따라 토지거래를 엄격한 기준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수시는 전남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한 지 20여 일이 지난 11월 여수시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죽림지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안을 심의·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죽림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일 것을 전제로 전남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한 셈이다. 여수시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안건이 상정된 뒤 이의가 없는지를 묻고 곧바로 통과시키는 등 일사천리로 처리됐다"며 "공공기관에서는 신도심 개발보다는 쇠락하고 있는 원도심 재생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수시와 전남개발공사 원도심 재생은 외면하고 쉽게 개발과 수익 창출이 가능한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주민의 견수렴을 위해 여수시청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과 관련 토지소유주,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관련 서류를 공람(供覽)하도록 했다. 공람 결과 주민, 토지소유주, 죽림지구 내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중인 조합 2곳 등이 "민간개발 부지를 제외해달라"고 의견을 냈으나 여수시 측은 "불가하다"고 답변한 뒤 4일 만인 11월 곧바로 여수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 여수시는 공람기간을 홈페이지와 지역신문 2곳에 공고했다는 입장이지만 대부분의 주민, 토지소유주들이 공람 사실을 몰라 의견을 내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한일 우호의 싹 틔우길" 시나코 日 중의원 외무위원장 도에 편백씨앗 30만 그루분 기증

쓰치야 시나코(土屋品子)일본 중의원 외무위원장이 14일 전남도를 방문해 편백씨앗 30만 그루분을 기증했다.

시나코 위원장은 이날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일우호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아버지에게 이어 편백씨앗을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나코 위원장의 부친은 일본의 참의원 의장과 사이타마현 지사를 역임한 쓰치야 요시히코(2008년 작고)씨로 1966년 2월 당시 참의원 재민당 방한 의원단의 한 사람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하면서

비행기에서 바라본 한국의 햇빛은 산을 보고 삼나무 씨앗 90만 그루분을 한국에 기증한 바 있다. 당시 보낸 삼나무 씨앗은 장성 축령산 등지에 심어졌다.

고 쓰치야 요시히코 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한일지사회의 개최를 제안, 제1회 한·일 지사회의가 1999년 11월 도쿄에서 열린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나코 위원장은 지난 9월 전남도를 방문한 언니 이치카와 모모코 여사를 통해 편백 씨앗 50만 그루분의 기증계

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시나코 위원장은 "30만 그루 분만 이번에 전달하게 된 것은 올해 일본의 편백 씨앗이 대용량으로 채취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남은 20만 그루 분의 씨앗은 내년 같은 시기에 채취해 보내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기증받은 편백 씨앗을 내년 3월 파종한 뒤 2년여 동안 양묘 과정을 거쳐 2018년 봄에 해남의 도유림 등에 심고 가꿀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보성갯벌' 도립공원 추진 '8선' 이만섭 전 국회의장 별세

장도리·장암리·대포리 일대

보성갯벌이 전남도립공원으로 지정된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보성군 벌교읍 장도리, 장암리, 대포리 일대 23㎢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도립공원 지정·고시를 거쳐 내년 4월 공원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앞서 도립공원 지정을 위해 타당성 조사, 주민 의견 수렴, 환경부·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쳤다.

보성갯벌에는 고막과 염생식물(갯잔디, 갯질경이 등), 천연기념물(저어새, 흑두리미 등 7종) 등 310종의 동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제14대, 16대 국회에서 두 차례 국회의장을 지낸 이만섭 전 의원이 14일 오후 4시35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

이 전 의장의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특1호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오는 18일 국회장으로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를 거쳐 지난 1963년 제6대 총선에서 31살의 나이로, 당시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한 뒤 7·10·11·12·14·15·16대 의원을 지내며 8선의 관록을 기록했다. 특히 두 차례나 국회의장을 지낸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원로다.

이 전 의장은 언론인 시절의 인연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 정계에

입문했다.

7대 의원 시절인 지난 1969년에는 3선 개헌 반대투쟁에 앞장서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이후라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의 해임을 요구했다가 약 8년간 정치활동의 공백기를 맞기도 했다.

대우 출신의 고인은 연세대 졸업 후 1956년 동아통신을 거쳐 1959년 동아일보에 입사, 정치부 기자를 거쳐 일본·미국 특파원을 등을 지냈다. 유족으로는 부인 한은복 씨와 장남 승욱, 딸 승희·승인 씨 등 1남2녀를 두고 있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초혼	추천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4년째 B1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신한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인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유한바이오 **글리코엔**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가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uM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